

# 축산업계

소식

## 축산기술연구소 조직개편

축산기술연구소(소장 정선부)는 각부·지소별 중복업무의 분산과 산하 4개지소의 「축종별 연구센터화」 등을 통한 실용연구기능 강화 등을 골격으로 하는 연구조직을 개편하였다.

동소에 따르면 축산기술부는 첨단기초연구만을, 종축개량부의 경우 가축의 품종개량과 신품종연구 등을 전담하게 되며, 대관령과 남원지소는 한우, 대전지소는 양계, 사천지소는 양돈 등으로 축종별 연구센터화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토록 했다.

이외관련 연구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현재 축산기술부에 집중돼 있던 것을 개량부와 각 지소 등 일선현장에 분산·배치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축산기술부의 각과별 평균연구인원은 18명에서 12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개량부와 지소의 경우 각각 8명과 6명에서 10명으로 증원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업무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상호 보완적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 평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파격적인 개편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편 지소장·과장급 인사이동과 양계연구분야 인사이동은 다음과 같다.

• 지소장·과장급 : 이수현 유전육종과장(전 종축관리과장), 신기준 영양생리과장(전 남원지소장), 지병천 종축관리과장(대관령지소장), 최진성 대관령지소장(전 중소가축 연구관), 탁태영 사천지소장(영양생리과장), 김원영 남원지소장(전 사천지소장)

• 양계연구분야(대전지소) : 이상진 연구관(전 영양생리과), 강보석 연구사(전 영양생리과), 김상호 연구사(전 영양생리과), 서옥석 연구사(전 시설환경과), 장병귀 연구사(전 유전육종과)

## 축협중앙회

### 계육가공공장 기공식 개최

축협중앙회(회장 송찬원)는 지난 26일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왕지방산업단지에서 충북도지사, 축협중앙회장, 음성군수, 양계사양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육가공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건설될 계육가공장은 부지면적이 13,000평, 건축연면적은 약 5,580평으로 총 투자액은 322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공장은 일일 64,000수의 닭을 가공하고 부산물을 전량 사료화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이고 위생적인 가공식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99년 1월초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한다. 가공공장이 가동하게 되면 충북지역의 양계농가 뿐만 아니라 인근의 양계농가들은 그동안 도계시설이 미흡하여 출하의 애로점이 많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 계육산업발전 세미나 개최



동회와 한국위생계육산업협회(회장 김홍국)가 공동으로 주최한 수입개방에 따른 계육산업 발전세미나가 지난 9일 축협중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일본식조협회 에이지 이치마 회장이 일본 계육산업의 마케팅이란 주제로 발표하였고, 전국대 김정주 교수가 수입자유화와 육계산업의 대응전략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다. 참여한 50여명의 관련단체 인사들은 일본의 수입물량과 계육검사제도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 충북양계조합 간담회개최



충북양계조합(조합장 강문달)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조합 지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간담회에는 100여명의 조합원과 임직원이 참석하여 병아리, 사료, 혈청검사, 계분처리문제 등에 관하여 토의가 있었다. 특히 계분처리에 있어서는 계분공동처리장이 신속히 마련되고 있지 않아서 계분 처리에 고심하고 있으며 더구나 질병전파의 원인이 되고 있어 조합차원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여 이를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간담회는 1일 상모면 중산리, 2일 괴산, 장연, 3일 음성, 4일 주덕, 5일 충주시내에서 개최되었다.

### (사)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농정대개혁 촉구대회 개최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황창주)는 지난 25일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97 전국 농업경영인 농정대개혁 촉구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는 3부로 나누어 개최되었다. 1부 농정대개혁 촉구대회에서는 농정개혁 10대과제



발표와 결의문 낭독이 있었다. 2부 각당 정책 위 의장 및 당농업전문가 초청토론회에서는 농 정 개혁을 위한 각당의 정책발표를 하였다. 3 부 각당 대선후보 농업관 강연에서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는 농업구조개선 사업을 계속 추진 할 것을 약속했고, 김대중 후보는 농가부채 경 감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했다. 김종필 후보는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언급했고, 조순 후보는 식량안정확보 및 소득보장 방안을 모색 하겠다고 하였다.

대선 후보자들의 공통적인 공약사항으로는 의료보험통합 실시와 2단계 농업구조개선 정책 실시 등을 제기하였다.

## 농업과학기술원

### 부산물비료 지정요령 확정

농업과학기술원(원장 김강권)은 비료 공정규 격의 부산물비료 퇴비원료중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 가능한 원료의 지정요령을 확정했다.

사용 가능한 원료를 사용하여 부산물 비료를 생산하려면 퇴비원료 지정신청서와 원료의 이 화학적 성분분석 성적서, 주생산품의 제조 원 료명, 사용량, 특성 등 신청원료의 배출과정에

대한 설명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사본 및 시료 500g 등을 첨부하여 동원에 제출 해야 한다. 사용 가능한 원료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물질의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식물 및 토양에 위해성 이 없어야 한다.

기술원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 정 받았을 때, 지정기준에 부적합할 때, 지정원 료의 품질관리 실태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 였을 때는 원료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 다.

## 농어민신문

### 정책간담회 개최

농어민신문(대표 황민영)은 지난 9일 국회 본관 2층 귀빈식당에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 회 의원보좌관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70여명의 관련기관·단체 관 제자들이 참석해 해당분야의 현안을 제기했다.

축산분야에서 제기된 현안은 축산물 가공업 무 일원화와 축종별 자조금 의무화, 수입산물의 국산둔갑방지 등이다.

양계분야에서는 권역별 계란공판장(공판장내 계란저장고, 자재창고 등 부속시설)을 1개씩 설 치한다는 것과 현행 자조금(농어촌발전 특별조 치법 제13조)의 관계법령 개정을 통하여 자조금 납부를 신속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대한수의학회

### 수의과학회관 기공식

대한수의학회(회장 이길재)는 지난 10일 경

기도 성남시에서 수의과학회관 기공식을 가졌다.

동회의 수의과학회관은 2000년대 수의기술 정보센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수의과학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이길재 회장은 밝혔다.

## 한국사료협회

### 세미나 개최



한국사료협회(회장 이병석)는 지난 2일 미국 대두협회와 공동으로 효과적인 곡물분진제거와 사료배합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경북대 박경규 교수가 곡물 분질의 발생과 대두유의 집진효과, 건국대 강창원 교수가 유효아미노산을 이용한 사료배합, 사료협회 박장희 소장이 사료의 안전성 관리제도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발표가 있었다.

##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 소비자 문제 세미나 개최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송

보경)은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제104회 소비자 문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대학생 소비생활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 발표에는 강문희 교수(서울여대), 이광자 교수(서울여대), 송보경 회장이 참여하였다.

## 한국식품위생연구원

### 공청회 개최



한국식품위생연구원과 한국식품영양과학회는 지난 24일 국립보건원 훈련부 대강당에서 21C의 바람직한 축산식품 관리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 주제발표자 뿐만 아니라 토론자로 참석한 대다수가 축산물가공업무는 복지부가 관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축산관련단체 참석자들은 이것은 21C의 바람직한 축산식품 관리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공청회가 아니라 복지부가 반드시 축산물 가공업무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표방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일소와 거센 항의를 하였다.